

영인프린티어, 대표이사 채무 비변제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

- ▶ 관련 기사 철회 및 정정보도 정식 요청
- ▶ 영인프린티어,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에 적극 대응할 것

<2019-08-08> 영인프린티어 (036180, 대표이사 김준성)가 최근 모 언론매체에서 불거진 대표이사 채무 비변제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영인프린티어 김준성 대표이사는 "기사에서 언급한 '서울 모 회사 000대표'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영인프린티어 인수를 위한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거액의 채무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전반적인 기사의 모든 내용이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이에 영인프린티어는 해당 매체에 기사 철회 및 정정보도를 정식 요청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인프린티어 관계자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슈로 영인프린티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주주 분들이 부정적 이슈사항에 동요되지 않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